

#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한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담론적 상관관계 연구

전성규\*, 김병준\*\*

---

## 목차

1. 근대계몽기 학술장과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2. 근대계몽기 학술지 자료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
  3. 1908년 8월 태극학회 회원의 ‘귀국’과 『서북학회월보』의 재편
  4.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주도 개념어: 근대계몽기 학술장의 주도 개념어와 관련하여
  5. 결론
- 

본고는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근대계몽기 1905~1910년 사이 발간된 학회보 및 협회보의 상관성을 정량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재일본 유학생 잡지 사이의 유사도를 제외하고 국내와 유학생 잡지 중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서북학회월보』 내에서의 기사 유사도 히트맵을 그려 봄으로써 『서북학회월보』 내에서 기사의 논조 변화와 시기, 그것과 『태극학보』와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고, 두 학회지 간의 기사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분석을 통해 필진의 구체화와 기사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두 학회지와 전체 근대계몽기 학술장의 비교를 위해 근대계몽기 10여 종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가 높은 단어군과 두 학회지의 TF-IDF 가중치가 높은 단어군을 뽑아 제시하였다. ‘국가’·‘국민’·‘문명’ 등 기존의 개념사 연구가 주목해 온 주도 개념어들

이 실제 근대계몽기 학술장에서 중요성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청년’·‘공자’ 등의 개념들과 관련해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가 담론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분야** 역사학, 문학, 디지털인문학, 개념사

**주 제 어** 디지털인문학, 근대계몽기 학술장, 『서북학회월보』, 『태극학보』, 코사인 유사도, TF-IDF

---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chewing0529@naver.com

\*\*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kuntakim88@gmail.com

## 1. 근대계몽기 학술장과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본고는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한국사데이터베이스<sup>1)</sup>에 전자화된 근대계몽기 1905 ~ 1910년까지 발간된 10여 종의 학회보 및 협회보 중, 특히 서북학회의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회의 『태극학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sup>2)</sup>

근대계몽기 발간된 잡지 중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전자화되어 있는 잡지는 10여 종의 것이고 각각 20호 내외 정도로 발간되어 있어, 수십·수백 년 혹은 수천·수만 종의 출판물이나 신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통계분석을 근대계몽기 잡지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분석 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연구자 개인이 잡지 10여 종의 언어를 모두 기억하고 그것의 담론 층위 등을 분석하기에는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근대계몽기 학회보 및 협회보는 1905년 이후 변화한 지식장 및 지식인 공공 영역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 우선 이들 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신문과 같은 대중적 공공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데이터베이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관념사 연구를 진행하는 대표

1) <http://db.history.go.kr>.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전자화되어 있는 근대계몽기 잡지 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와 아세아문화사의 영인본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작년도	제작자	제작장소	제작주제	제작내용	제작방법	기사제목	제작시기	기사내용	문제	문제분류	문제내용
대한통운기자회원회 1905년 05월	大韓通運公司員會	서울	大韓通運公司員會								
대한경회회 1905년 06월	大韓經會	서울	大韓經會								
대한경회회 1905년 06월	大韓經會	서울	大韓經會								
대한경회회 1905년 06월	大韓經會	서울	大韓經會								

[그림 1] 대조 작업의 예

아세아문화사의 영인본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한 미가공 데이터를 비교하여, 영인본을 기준으로 오·탈자를 수정하고 하나의 기사에 바뀐 음절 수를 표시하고 있다. 耳 → 而, 入憲 → 立憲 등 수정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10여 종의 잡지에 대해 위와 같은 대조 작업을 수행한 후 전체 음절 수에 대한 바뀐 음절 수의 비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적인 학자인 류칭평(劉青峰)은 키워드와 그 의미의 계량분석법은 항상 “어떤, 총량이 얼마나 되는 문헌을 취해야 그 시기 해당 낱말의 의미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바 있다.<sup>3)</sup> 문헌의 총량이 많다면 연구자의 주관성이 반비례하여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고 언어 자체의 의미의 변곡점들이 통시적으로 그려질 것이라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총체적 장이 좁은 공간에서나마 그려졌다면 그 장에 대한 공시적 분석 즉 담론 진영이나 그것에서 비롯한 담론의 층위들 역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보통 1880년대 후반부터 1910년 이전까지의 공공 영역의 구분은 1898년의 독립협회 해산과 그 이후 1905년까지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고 광무정권이 유지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세 시기(1898년 독립협회 해산 이전, 1899 ~ 1905년 독립협회 해산 이후부터 광무정권 유지기, 1905 ~ 1910년의 통감부 통치기)로 나뉜다.<sup>4)</sup>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터져 나온 계몽운동의 피장이 1905년 이후의 활발해진 공공 영역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으나, 또 한편으로는 1905년 이후 대거 귀국하는 유학생 지식인들의 번역운동과 지식운동, 사회운동, 그것의 정치 집단화, 정치운동의 정당화(政黨化)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김효전의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에서는 안국선(安國善)이나 조성구(趙成九)·김상연(金祥演) 등 여러 유학생 출신의 필진에 의해 1905년부터 출판되어 온 국가학·정치학·법학 등에 관한 번역·저술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지만,<sup>5)</sup> 이들의 교육 활동이나 번역서를 실은 지면의 상당수는 학회보나 협

3) 류칭평, 2009, 「관념사(觀念史)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 『개념과 소통』 제4호, 178쪽.

4) 길진숙, 2006, 「문명의 재구성 그리고 동양 전통 담론의 재해석: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사, 13 ~ 16쪽; 박주원, 2006, 「1900년대 초반 단행본과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 담론의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사, 117 ~ 122쪽.

5)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현실사.

회보의 학술지를 통해서였다.<sup>6)</sup>

지금까지의 학회보 및 협회보에 대한 연구들은 각 단체 수뇌부의 구성과 구성의 계층적 성격, 정치적 지향점의 상이함, 단체의 지회 분포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온 만큼<sup>7)</sup> 근대계몽기 학회 및 협회 활동은 상이한 정치적·사상적 지형을 가진 각 회가 다양한 담론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후술하겠으나 <표 6>에서 볼 수 있듯 학술지 10여 종의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sup>8)</sup> 가중치 분석을 통해 상위 단어로 추출된 단어군에는 ‘국가’나 ‘국민’·‘교육’ 등 근대 주요 개념으로 간주되어 온 단어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會)’나 ‘회원(會員)’·‘가결’·‘동의’와 같은 단체 유지와 확장, 그것의 규칙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여럿 포함되었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공공 영역의 존재 방식이 ‘여론’을 기반으로 하고 이 기반의 확장 문제에 있어 경제 및 이해관계의 영

6) 김상연이나 안국선 등은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관료가 되는 과정을 밟기보다 학회 및 협회운동에 투신하였다. 김상연은 1902년 도쿄전문학교 정치과를 졸업하고 귀국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 발간에 관여하다 서우학회의 주도 회원이 되었고, 안국선도 도쿄전문학교 정치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기호홍학회의 월보 저술원 법학협회의 발기인, 대한협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김효전, 2000, 앞의 책, 505~553쪽).

7) 홍인숙 정출현, 2012, 『『大韓自強會月報』의 운동성과 지향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30집; 김항구, 1993, 「대한협회(1907~1910) 연구」,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전재관, 1997,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승실시학』 제10집; 김일수, 2002, 「대한제국 말기 대구지역 계몽운동과 대한협회 대구지회」, 『민족문화논총』 제25집; 박민영, 1996, 「1908년 鏡城義兵의 편성과 대한협회 鏡城支會」,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집; 이송희, 1883,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상·하」, 『한국학보』 제31 ~ 32호; 이송희, 1984,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부산여대사학』 제1호; 조현우, 1995,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한국학연구』 제5집; 조현우, 2000, 「서북지회의 관서지방 지회와 지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4호; 조현우, 2001, 「안악지방에서의 애국계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8호; 조현우, 2002, 「한북홍학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호; 김미오, 1981, 「한말의 기호홍학회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염기윤, 2018, 「대동학회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우, 1995, 「한말 태극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태주, 1996, 「대한홍학회의 성립과 활동」,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https://ko.wikipedia.org/wiki/Tf-idf>.

역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sup>9)</sup> 각 학회 및 협회는 보편의지나 시대적 사명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발화하는 장이며 그 근대계몽기의 학술장이 다층적으로 분리되고 또 종합화될 수 있다고 할 때 1905~1910년 사이의 학회보 및 협회보가 중심이 된 독특한 공론장의 형성을 그 자체로 한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근대계몽기 설립된 학회는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대한협회(大韓協會), 서우학회(西友學會), 한북홍학회(漢北興學會), 서북학회(西北學會), 기호학회(畿湖學會), 호남학회(湖南學會), 관동학회(關東學會), 교남교육회(嶠南教育會), 대한학회(大韓學會), 태극학회(太極學會), 대한홍학회(大韓興學會)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대한자강회와 이를 계승한 대한협회는 전국을 단위로 한 대표적인 계몽단체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에 있는 지방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여 자신들의 출신 지역을 근거로 한 학회들도 활발히 설립되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회 가운데에는 평안도와 횡해도 출신 인사들이 조직한 서우학회와 함경도 출신 인사들이 조직한 한북홍학회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두 학회는 1908년 1월 통합되어 서북학회로 발전하였다. 서북학회의 설립은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어 기호, 호남, 관동, 교남 지방 출신 인사들도 출신 지역을 근거로 하여 기호홍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교남교육회 등의 학회가 차례로 설립된다.

또한 재일(在日) 유학생 단체는 1898년 친목회와 제국청년회가 그 시초였으며 1903년부터 관비유학생이 급감하고 사비유학생이 점차 증파된다. 1907년까지 격증한 유학생들이 태극학회, 대한학회, 공수학회(共修學會), 연

---

9) 필자는 1905년 이후 근대계몽기의 공공 영역을 규명하는 데 있어 지식인의 성격이 사회 내적이고 의미맥락적인 관계 속에 구속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키를 만하임(Karl Manheim)이 말한 ‘존재구속성(Siensverbund)’을 띠고 있다고 본 바 있다[전성규, 2018, 「근대계몽기 정체(政體) 딤론과 지식인-문인 공공 영역의 생성: 협회·학회운동과 사대부적 공공 영역의 장기 변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학회(研學會) 등을 만들었고 이들이 1909년 대한홍학회로 통합된다.

본고가 10여 종의 학회보 및 협회보 중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상관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 대상들에 대한 국문학계의 개념사 연구가 다른 학회보 및 협회보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하나 혹은 둘의 학회지나 신문을 꼼꼼히 읽는 연구 성과가 이미 많이 생산되어 있어 ‘가까이 보기’와 ‘멀리서 보기’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국문학계와 사학계에서 수행된 연구는 주로 『개벽』이나 『조선문단』 등 1920년대 잡지를 대상으로 제출되었지만,<sup>10)</sup> 비교적 활발하게 개념사나 관념사 연구가 행해진 191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한 연구 성과가 드문 편이다.<sup>11)</sup>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특히 근대 개념의 번역과 수용 양상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1908년 이후 태극학회의 유학생들을 서북학회가 적극적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에 번역어 및 개념어 수용 양상의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대상들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재일본 유학생 단체가 중심이 된 학회들과 국내의 서우학회 및 서북학회가 인적·지리적 연결로 관계성이 활발히 서술되어 왔다. 조현옥은 서북학회와 그 전신인 서우학회, 그리고 태극학회 회원들의 출신지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필진이나 독자가 상당수 겹치고 있으며, 대한홍학회의 경우도 태극학회 회원들이 대

10) 허수, 2011,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푸른역사; 이재연, 2014,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 제17호; 이재연, 2016a, 「생활'과 '태도': 기계가 읽은 『개벽』과 『조선문단』의 작품 비평어와 비평가」, 『개념과 소통』 제18호; 이재연, 2016b, 「키워드와 네트워크: 토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제46집.

11) 『개벽』, 『조선문단』 등의 1920년대 잡지의 경우 형태소 분석이 용이하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좀 더 수월한 데이터 전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디지털인문학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10년 이전 잡지의 경우 순한문체가 많고 중간중간 띠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전자문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

거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북학회와 재일본 유학생 단체들의 인적 관련성이 깊다고 보았다.<sup>12)</sup> 김영민은 『태극학보』의 ‘인물고’ 유의 글이 실리기 시작한 것은 『조양보』와 『서우』에 ‘인물고’와 ‘역사·전기소설’이 실리던 시기와 중첩됨을 지적하며 『서우』와 『태극학보』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하였다.<sup>13)</sup> 또한 전은경은 태극학회 회원인 김원극(金源極)이 박은식(朴殷植)의 뒤를 이어 주필을 맡으면서 『서북학회월보』는 제16호부터 이전 박은식 주필 체제와 달리 ‘문예’, ‘담총’, ‘가담(街談)’, ‘사조’ 등이 급증하면서 문예적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sup>14)</sup> 『서우』와 『서북학회월보』의 문예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태극학회를 비롯 재일본 유학생 단체들과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지적되는 이유는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등에서 채기두(蔡基斗), 장웅진(張膺震), 이보경(李寶鏡)과 같은 필진에 의해 근대의 지식체계와 근대문학 개념이 활발히 번역되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sup>15)</sup> 그 외에도 사회 개념의 번역<sup>16)</sup>과 의학 개념의 번역,<sup>17)</sup> 체육 개념의 번역<sup>18)</sup>에 있어 『태극학보』는 주요한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본고가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0여 종 학회지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유사도가 재일본 유학생 잡지 간 유사도를 제외하고 국내에 기반을 둔 잡지와 일본 유학생 사회에 기반을 둔 잡지 중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12) 조현욱, 1995, 앞의 논문; 조현욱, 2000, 앞의 논문.

13) 김영민, 2007, 「근대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32호.

14) 전은경, 2018, 「근대계몽기 서북지역 잡지의 편집 기회와 유학생 잡지의 상관관계: ‘문학’ 개념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83호.

15) 이재봉, 2009, 「근대의 지식체계와 문학의 위치」, 『한국문학논총』 제52집; 구장률, 2012, 「근대 초기의 잡지의 분과 학문의 형성」, 케이포복스.

16) 김현주, 2015, 「계몽기 문화 개념의 운동성과 사회이론」, 『개념과 소통』 제15호.

17) 안남일, 2019, 「『태극학보』 소재 의료 관련 텍스트 연구」, 『한국학연구』 제68집.

18) 곽형기, 1998, 「한말 태극학회의 활동과 체육사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7권 제4호.

〈표 1〉 근대계몽기 학회지 11종의 코사인 유사도

(단위: %)

	대한 자강회 월보	대한 협회 회보	서우	서북 학회 월보	기호 총학회 월보	태극 학보	호남 학보	대한 학회 월보	대한 유학생 회학보	대한 총학보	대동 학회 월보
대한자강회월보	100.0	67.0	58.7	57.6	51.9	56.4	34.8	51.6	51.5	55.1	38.0
대한협회회보	67.0	100.0	62.6	63.7	53.7	60.2	37.3	59.5	56.0	62.2	35.2
서우	58.7	62.6	100.0	70.8	53.8	64.4	38.4	57.7	54.0	62.0	32.4
서북학회월보	57.6	63.7	70.8	100.0	67.5	75.6	38.3	63.1	57.1	70.7	35.6
기호총학회월보	51.9	53.7	53.8	67.5	100.0	65.3	33.3	51.7	51.9	59.5	35.2
태극학보	56.4	60.2	64.4	75.6	65.3	100.0	27.8	72.2	70.4	78.5	34.0
호남학보	34.8	37.3	38.4	38.3	33.3	27.8	100.0	28.7	24.8	32.7	19.4
대한학회월보	51.6	59.5	57.7	63.1	51.7	72.2	28.7	100.0	66.6	82.0	29.3
대한유학생회학보	51.5	56.0	54.0	57.1	51.9	70.4	24.8	66.6	100.0	66.7	31.6
대한총학보	55.1	62.2	62.0	70.7	59.5	78.5	32.7	82.0	66.7	100.0	28.1
대동학회월보	38.0	35.2	32.4	35.6	35.2	34.0	19.4	29.3	31.6	28.1	100.0
잡지별 유 사도 평균	56.6	59.8	59.5	63.6	56.7	64.1	37.8	60.2	57.3	63.4	38.1

위의 <표 1>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전자화된 근대계몽기 잡지 10여 종에 대해 코사인 유사도<sup>19)</sup>를 측정한 결과이다.<sup>20)</sup> 동일한 잡지(예: 대한자강회-대한자강회) 사이의 유사도가 100퍼센트라고 할 때 70퍼센트 이상의 유사도

19) [https://ko.wikipedia.org/wiki/코사인\\_유사도](https://ko.wikipedia.org/wiki/코사인_유사도).

20) 해당 표의 코사인 유사도 결과는 잡지가 사용하는 단어군을 기반으로 한다. 단어군의 사용 비중이 서로 유사할수록 유사도는 높아진다.

를 보이는 잡지들, 즉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잡지를 추려 보면 『태극학보』와 『대한학회월보』(72.2퍼센트),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75.6퍼센트), 『태극학보』와 『대한홍학보』(78.5퍼센트), 『대한학회월보』와 『대한홍학보』(82퍼센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태극학보』는 잡지별 유사도 평균이 64.1퍼센트로서 『서북학회월보』 및 여타 다른 재일본 유학생 학회지뿐만 아니라 『대한협회회보』, 『서우』, 『기호홍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와도 60퍼센트가 넘는 유사도를 보이고 있어 10여 종의 근대계몽기 잡지 중 『태극학보』가 논의의 저변이 가장 넓은 매체임을 추측할 수 있다.

## 2. 근대계몽기 학술지 자료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

### 1) 데이터 수집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과정 그리고 본격적인 언어 분석 방식에 있어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 중인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근현대 잡지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총 83종의 잡지가 전자문서로 제공되었으며, 프로그래밍언어(R)를 활용하여 잡지 종류·발행일·기사 제목·기사 종류·필자·본문 등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존에 디지털인문학 연구로 활용된 『개벽』 등의 1920년대 잡지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 1910년 이전 잡지뿐만 아니라 구한말부터 해방까지 약 50년간 출판된 모든 근현대 잡지에 대한 디지털인문학 연구도 기대해 본다.



[그림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잡지자료 예시

## 2) 데이터 정제

우선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잡지자료 데이터 컬럼 예시

집지 종류	집지명	발행일	기사 제목	필자	기사 형태	본문	본문 한자어
대한자강회 월보	대한자강회 월보 제11호	1907년 5월 25일	教育의 宗旨와 政治의 關係	松堂 金成喜	논설	教育의 宗旨와 政治의 關係 松堂 金成喜 凡人之異於禽獸者는 有思想焉이며 有能力焉이期達其所向之目的이 教育也라 然이 는 教育而無宗旨면 無異於使爲箕者學治호	教育, 宗旨, 政治, 關係 松堂, 金成 喜, 凡人 .....

					고 使爲矢者學 函이니 豈有成 功之目也리오 .....
--	--	--	--	--	---------------------------------------

‘본문 한자어’ 컬럼은 본문(제목과 필자 포함)에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1음절 이상의 한자어만 추출해 구성하였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언어(Python)의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활용해 한자어만 따로 가져올 수 있었다. 한글을 데이터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1910년 이전 근현대 잡지는 국한문혼용체로 한글이 조사 혹은 ‘토’로서만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확인하고자 한 개념사로서의 개념 단어는 한자어로 국한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한자어만 따로 추출함으로써 한글이 가진 동음이의어의 문제<sup>21)</sup>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불용어(stop words)<sup>22)</sup>를 제거하는 과정도 거쳤다. 불용어 처리란 자연어 처리 혹은 정보학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개념으로, 거의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제거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757개의 불용어 사전을 구축해 ‘본문 한자어’의 불용어를 연구 과정에서 제거하였다. 대표적인 불용어는 연월일을 나타내는 숫자(예: 七月 등), 한문에서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어조사(예: 於, 氏 등) 등이었다. 영어에서도 불용어 사전에 관사, 지시대명사 등을 포함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다. 본 연구에서도 불용어 사전을 섭세하게 구축하여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 번째, ‘기사 형태’에서 한시(漢詩) 등 담론 분석과는 관련 없는 문서를

21) 기준에 한국 근현대 잡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인문학 연구에서도 한글 단어의 동음이의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재연의 연구에서 단어 ‘이상’을 작가 이상(李箱) 혹은 以上, 理想 등으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맥락을 통해 해석해야 함을 기술했다(이재연, 2016a, 앞의 논문, 19쪽).

22) [https://en.wikipedia.org/wiki/Stop\\_words](https://en.wikipedia.org/wiki/Stop_words).

제외하였다. 기사 형태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속성값으로, 분석에 포함한 종류는 ‘논설’·‘소식’·‘잡지’·‘학술’·‘문예 평론’·‘세태 비평’ 등 총 9종이었다.

마지막으로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을 구축해 텍스트로 이루어진 근현대 잡지 데이터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정형화’하였다. 말뭉치(corpus)에서 각 문서가 갖는 단어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단어–문서 행렬 예시

문서 제목 \ 단어	教育	宗旨	政治	關係	松堂	金成喜	...
教育의宗旨와 政治의 關係	3	2	1	4	1	1	...

위 <표 3>과 같이 각 문서(기사)에 단어들의 출현 횟수를 적어 행렬 형태로 만든다. 만약 해당 문서에서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출현한다면 ‘0’을 적는다. 위 예시에서는 단순 빈도수(term-frequency)를 활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TF-IDF 가중치를 활용해 보다 상대적인 문서당 단어의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단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출현 횟수가 2회 이상인 단어만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1회 등장한 단어는 담론 형성에 주요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며, 텍스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야에서 효율적인 자료 처리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단어–문서 행렬을 기반으로 단어–잡지 행렬을 구축하였다. 각 잡지에 속한 문서(기사)의 값을 모두 더한 후 해당 잡지의 총문서수로 나누어 정규화(normalize)하였다.

### 3) 근현대 잡지 11종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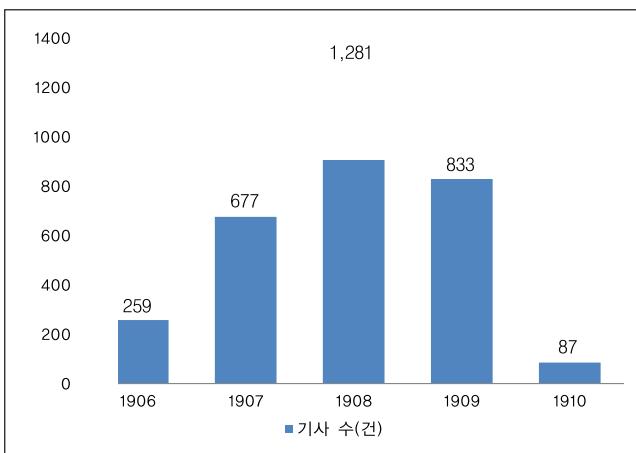
데이터 정제 단계를 거친 결과 1910년 이전 근현대 잡지 11종의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다음과 같다.

〈표 4〉 잡지별 주요 통계량(기사 수 내림차순)

잡지 종류	기사 수(건)	기사별 평균 음절 수
태극학보	505	2,045
서북학회월보	420	1,756
서우	320	1,729
대한협회회보	318	1,908
기호·홍학학회월보	304	1,452
대한자강학회월보	281	2,002
대동학회월보	264	1,960
대한홍학보	242	2,168
대한학회월보	234	1,568
호남학보	156	1,619
대한유학생회학보	93	1,717
합	3,137	19,924

〈표 4〉를 보면 총 11종의 잡지 중 연구 대상이 된 기사는 총 3,137건이며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가 가장 많은 비율(약 30퍼센트)을 차지한다. 기사별 평균 음절 수의 경우는 『대한홍학보』가 2,168음절로 가장 많았다.

[그림 3]은 1906 ~ 1910년 5년간 잡지 11종의 연도별 기사 수 그래프이다. 1908년에 1,281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가 배출되었고, 경술국치가 있던 1910년에는 겨우 87건의 기사만 존재한다. 11종의 잡지가 연평균 627건의 기사를 발행하였다.



〔그림 3〕 연도별 기사 수(건)

#### 4) 주요 분석 방법론

##### (1) TF-IDF

TF-IDF는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쓰이는 주요 가중치로 단순 빈도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이다.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절대적인 빈도수가 아닌 상대적인 중요함을 나타낼 때 자주 활용된다. 해당 단어의 빈도수에 역문서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하여 구하는데 공식은 역문서 빈도는 다음과 같다.

$$\text{idf}(t, D) = \log \frac{|D|}{|\{d \in D : t \in d\}|}$$

〔그림 4〕 역문서 빈도 공식

〔그림 4〕에서 보듯 총문서수를 해당 단어가 속한 문서 수로 나누어 로그

를 취하면 역문서 빈도를 구할 수 있다.<sup>23)</sup> 예컨대 『서북학회월보』에서 ‘西北’이라는 단어는 그 빈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문서에 ‘西北’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 빈도수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추출한다면 각 문서에 ‘西北’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단어는 빈도수가 높은 만큼 해당 문서의 특징을 대표하는 단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때 빈도수에 역문서 빈도를 곱함으로써 거의 모든 문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의 중요도를 떨어뜨리고 해당 문서만의 고유한 단어에 가중치를 더하는 효과를 준다. 예컨대 ‘勞動’이라는 단어가 『서북학회월보』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특정 한 문서에 자주 등장한다면, 해당 문서를 표상하는 단어는 ‘西北’이 아니라 ‘勞動’이 되어야 한다.

## (2)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는 앞에서 말한 TF-IDF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정보 검색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유사도 기준이다. 이를테면 구글 등의 정보 검색엔진에서 사용자가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이나 연관 문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기준이다. 코사인 유사도는 0과 1의 범위를 가지는데 완전 유사하면 1, 아예 유사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문서별 혹은 잡지별로 단어-문서(잡지) 행렬을 구축하고 행렬에 코사인 유사도 공식을 적용해 문서와 문서의 유사도, 잡지와 잡지의 유사도 등을 계산하였다.

[그림 5]에서 A와 B는 각 문서나 잡지의 벡터값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TF-IDF 가중치로 구성된 단어-문서(잡지) 행렬의 값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각 문서(잡지)의 특정 단어에 대한 가중치(TF-IDF)가 유사할 때 유사도는 증가한다. 쉽게 말해 두 문서의 공통 단어가 많고 해당 단어에 가중치가 비슷할수록 유사도는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

---

23) 분모가 0이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1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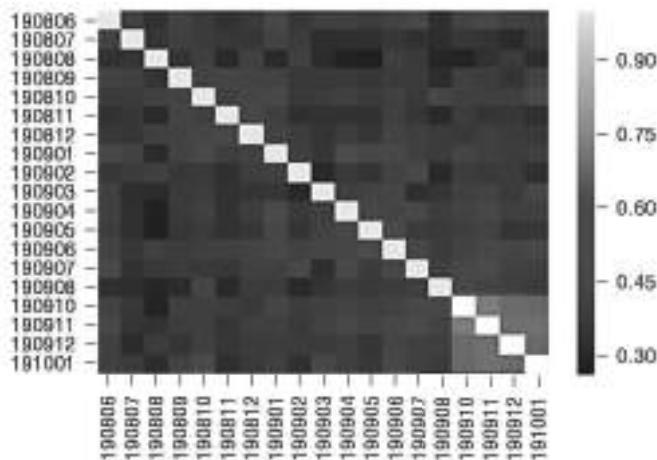
$$\text{similarity} = \cos(\theta) = \frac{\mathbf{A} \cdot \mathbf{B}}{\|\mathbf{A}\| \|\mathbf{B}\|} = \frac{\sum_{i=1}^n A_i \times B_i}{\sqrt{\sum_{i=1}^n (A_i)^2} \times \sqrt{\sum_{i=1}^n (B_i)^2}}$$

[그림 5] 코사인 유사도 공식

### 3. 1908년 8월 태극학회 회원의 ‘귀국’과 『서북학회월보』의 재편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우선적으로 학회지 간 공통된 필진과 기사에서 공유된 언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중복된 필진을 확인해 본 결과,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 모두에 글을 쓴 필자는 김원극(金源極)·김병억(金炳億)·장계택(張啓澤)·경제생(耕世生)·서병현(徐炳弦)·김진초(金鎮初)·일기자(一記者)·이장자(耳長子)·두산일민(頭山逸民)·추성자(秋醒子)였다. 학회지 간 필명과 실명 대조 작업이 더욱 진행된다면 약간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대계몽기 학보 10여 종 중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유사도가 높은 잡지로 나온 결과에 비해 필진의 중복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서북학회월보』 내에서 태극학회의 회원이었거나 회원인 필진의 글이 자주 발견되는 시점은 1908년 7~8월 이후부터이다. 여러 기사를 통해 1908년 초부터 서북학회와 태극학회 재일 유학생들의 교류가 빈번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08년 8월경부터 태극학회의 회원 중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서북학회 활동에 합류하는 자가 다수 생기면서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관계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서북학회월보』 내에서의 기사 코사인 유사도 히트맵

[그림 6]은 『서북학회월보』 내에서 기사들의 언어가 호별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sup>24)</sup> 1909년 8월을 전후하여 색깔의 변화가 확연히 보이며 색의 변폭이 줄어들었다. 1909년 8월 이전의 호에 실린 기사들은 기사 간 언어 유사도가 1909년 8월 이후의 기사들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1909년 8월은 『서북학회월보』의 주필이 박은식에서 김원극으로 이동한 시기이다.

1909년 8월 19일 학회의 임시 통상회에서 『서우』 시기부터 편집 책임을 맡아 온 박은식의 월보 주필 사면청원서가 받아들여져 새로운 주필로 김원극이 선출되었다.<sup>26)</sup> 이 시기 이후 『서북학회월보』의 마지막 호인 제19호 (1910. 1. 1)까지 이전보다 기사의 논조나 학보의 목적성이 뚜렷해진 경향이

24) 음영이 열어질수록 유사도가 100퍼센트(1)에 가까워 더 유사함을 뜻하며, 질어질수록 유사도가 0퍼센트(0)에 가까워 더 비유사함을 뜻한다.

25) 1909년 8월 이전 문서들의 평균 코사인 유사도: 약 33퍼센트, 1909년 8월 이후 문서들의 코사인 유사도: 약 53퍼센트.

26) 「會事記要」, 『서북학회월보』 제16호(1909. 10).

생긴 것이다. 1908년 8월 이후 히트맵 색의 변폭이 줄어들어 균일한 색을 보이는 것이 『서북학회월보』 내에서 논조가 보다 초점화되었음을 보여 준다(그러나 무엇으로 초점화되었는지는 좀 더 살펴볼 문제이다). 주필 변화가 있던 바로 이전 시기인 1908년 후반기에 태극학회의 회원이기도 한 재일본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고 서북학회 활동에 가담하면서 학회 활동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학회의 성격이 이전보다 뚜렷해진 것이다.

『태극학보』와 『서북학회월보』 두 학보에서 중복되는 필진 중 가장 많은 글을 쓴 필자는 김원극<sup>27)</sup>이다. 김원극은 『서북학회월보』에는 제1호(1908. 6. 1)부터, 『태극학보』에는 제23호(1908. 7. 24)부터 글을 싣고 있다. 여러 기사로 보아 김원극은 1908년 봄에 잠시 귀국하여 평양 각 학교 연합운동회를 관람하고 7월에 도일(渡日)했으나 8월에 휴학하고 귀국하는 도쿄의 한 유학생과 함께 다시 조선에 온 적이 있는데, 이 시기에 서북학회 회장 정운복(鄭雲復)과 학회 회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북학회와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sup>28)</sup>

김원극은 『서북학회월보』에는 주로 교육을 장려하고 근대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을 썼으나, 『태극학보』에는 우에노공원 유람기·동물원 구경기·아사쿠사공원 유람기·히비야공원 유람기 등 기행문을 주로 실었다.<sup>29)</sup> 김원극이 『태극학보』에 일련의 유람기·관람기 등을 자주 발표하자, 함경남

27) 『태극학보』 5호, 『서북학회월보』 13호.

28) 于岡生, 1908, 「送松南金君東遊日本」, 『서북학회월보』 제2호; 東京遊客 松南春夢 金源極, 1908, 「警告我平南紳士同胞」, 『서북학회월보』 제3호; 松南生, 1908, 「内地에서 日本留學生 歡迎 及 餌別會의 消息」, 『태극학보』 제25호.

29)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김원극의 교육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松南春夢 金源極, 1908, 「教育方法必隨其國程度」, 『서북학회월보』 제1호; 松南春夢 金源極, 1908, 「實業獎勵爲今日急務」, 『서북학회월보』 제2호; 東京遊客 金源極, 1908, 「祝十一學土」, 『서북학회월보』 제4호; 松南, 1909, 「告我學生諸君」, 『서북학회월보』 제16호; 松南, 1909, 「今日은吾人の活動時代」, 『서북학회월보』 제17호. 『태극학보』에 실린 김원극의 기행문은 다음과 같다. 宋南 春夢人, 1908, 「遊上野公園」, 『태극학보』 제22호; 宋南 春夢人, 1908, 「觀動物園」, 『태극학보』 제22호; 宋南 春夢, 1908, 「遊淺草公園記」, 『태극학보』 제23호 등.

도 영홍군의 동명학교(東明學校) 감독이라 밝힌 이달현(李達鉉)·강념백(姜念伯)·홍재현(洪在憲) 3인은 『태극학보』에 「공정우태극학보 주필 김원극 각하(恭呈于太極學報 主筆 金源極 閣下)」라는 글을 보내, “실가(室家)의 자미(滋味)와 온포(溫飽)의 기락(嗜樂)은 인(人)의 동일한 상정(常情)”이지만 그 실가와 자미와 온포는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보다 국권 만회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다.<sup>30)</sup>

김원극이 1909년 10월 박은식의 뒤를 이어 태극학회의 주필이 된 후 쓴 글들은 청년들을 교육할 방향을 모색한 글이 주를 이루었다. 「금일은 오인(吾人)의 활동시대」(『서북학회월보』 제17호, 1909. 11. 1)라는 글에서는 전국의 청년에게 전문적 교육을 위해 외국 유학을 권하며 일본뿐 아니라 서구와 북미에 가서 진전(眞詮)한 학문을 수학할 필요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 김원극은 신학문을 유학(儒學)과의 관계성 안에서 수용해야 함을 피력하는 글을 여러 편 쓴다. 당시 박은식은 『서북학회월보』의 주필직을 사임하고 1909년 10월 10일(음력 8. 27) 공자 탄일을 기하여 대동교(大同教)를 창건하였는데,<sup>31)</sup> 당시 대동교회에서 김원극이 연설한 글에서는 대동교가 선종교(仙宗教)나 야소교보다 유연하다고 평가하며 학문으로서도 “문약이 유교의 죄라 하니 이는 유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끼닭이로다”라고 하여 유학을 경제학·정치학·문학·물리학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구심적 학문으로 보았다.<sup>32)</sup> 그는 이용후생교육과 도덕교육이 세대 간, 사회 간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전국 청년으로 하여금 일변으로 도덕상 함양을 받으며 일변으로 물질상 연구를 통해(通解)하여 그 품행은 겸손한 덕의를 발견할지오. 기술은 정치한 효능을 가지”<sup>33)</sup>게 해야 하고, 교육의 목적 이 국권의 부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합중력(合衆力)”은 유학에 있다

30) 李達鉉·姜念伯·洪在憲, 1908, 「恭呈于太極學報 主筆 金源極 閣下」, 『태극학보』 제26호.

31) 유준기, 1999, 『한국근대 유교개혁운동사』, 아세아문화사, 102쪽.

32) 金源極, 1909, 「大同教會演說」, 『서북학회월보』 제18호.

33) 松南, 1909, 「因海山朴先生仍舊就新論告我儒林同志」, 『서북학회월보』 제18호.

고 보았다.<sup>34)</sup> 김원극의 양 학보에 실린 글 중 『태극학보』에 실린 글들보다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글들은 서북학회의 유교구신(儒教求新) 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보다 공적인 글이 많다.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조선총독부 직속 평안남도 경무부 경찰관과 평양지방법원 서기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장계택은<sup>35)</sup>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 「경찰의 목적」, 「경찰의 연혁」, 「경찰정탐」 등의 글을 발표한다.<sup>36)</sup> 『태극학보』 제20호에 「장계택 씨의 사력(事歷)」이라는 글이 실리는데, 장계택이 황해도 장현군(長連郡) 출신이며 장현군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광무 9년(1905)에 일본 유학을 떠났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중간에 학자금이 부족하여 귀국하였다가 다시 도일해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입학, 경무전과(警務全科)를 졸업한 후, 일본 경시청 제3회 훈련소와 경시청 제3회 소방연습소 과정을 수료하고 1908년 5월 초 성공적으로 귀국했다.<sup>37)</sup>

농학사(農學士) 김진초는 1908년 8월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sup>38)</sup> 『서북학회월보』의 농업진흥론을 주도하였다. 김진초는 『태극학보』와 『서북학회월보』에 조림학(造林學), 과수(果樹), 양돈(養豚), 양계(養鷄)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다.<sup>39)</sup> 또한 『태극학보』 연재 시에는 김진초라는 본명을 사용하였으나 『서

34) 松南, 1910, 「開化守舊兩派의 背失」, 『서북학회월보』 제19호

3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 직원록 자료 참조(

36) 張啓澤, 1906, 「警察之目的」, 『태극학보』 제4호; 張啓澤, 1906, 「警察之沿革」, 『태극학보』 제5호; 張啓澤, 1907, 「警察之分類 第四號續」, 『태극학보』 제6호; 張啓澤, 1907, 「警察偵探」, 『태극학보』 제7호; 張啓澤, 1907, 「일본 동경경시청」, 『태극학보』 제9호; 會員 張啓澤, 1908, 「警察問答」, 『서북학회월보』 제3호.

37) 「張啓澤氏의 事歷」, 『태극학보』 제20호(1908).

38) 松南生, 1908, 「內地에서 日本留學生 歡迎 及 餉別會의 消息」, 『태극학보』 제25호.

39) 金鎮初, 1909, 「果樹園을 創設」, 『서북학회월보』 제14호; 金鎮初, 1909, 「我國現在의

『북학회월보』에는 경세생(耕世生, 畿世生)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세생이라는 필명은 주로 「농업의 개량」, 「농업 진흥의 사건」, 「임업의 효용론」, 「농업의 보호와 개량에 관한 국가의 시설」 등 농업 개량과 진흥론과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다.<sup>40)</sup> 『태극학보』 제17호에 실린 「농업의 보호와 개량에 관한 국가의 시설」에서는 농업을 “국가의 근본이고 인민의 생명”이라고 정의하며 개량 농업법을 소개하는데, 이는 1908년 당시 삼림법(森林法)의 제정·시행 등 국가의 기간인 농업이 처해 있는 위기적 상황과 이것이 서북지방의 사회적·경제적 여건하에 서북학회의 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한 데에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는 유학생 지식인의 논설과 번역물이 활발히 실렸던 한편으로 가담, 항설(巷說) 등도 꾸준히 실렸다. 두 학보에서 이 난을 담당한 자는 이장자라는 필명을 쓰는 이였다. 가담이나 항설이 시정의 소문과 떠도는 말을 가리키는 만큼 대화체로 글이 구성되어 있다. 『서북학회월보』 제16호에 실린 「갑을문답」이라는 기사는 “(甲) 한국 사립이 고래로 생활영업(生活營業)을 무엇히 먹고 살안나뇨”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지금의 양반은 생계를 위해 비밀 매음, 전당 잡히기를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sup>41)</sup> 이 밖에 신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 남편의 첨치

果樹改良」, 『서북학회월보』 제15호; 金鎮初, 1906, 「造林學之必要」, 『태극학보』 제1호; 金鎮初, 1906, 「徵菌論」, 『태극학보』 제2호; 金鎮初, 1906, 「造林上立地의關係」, 『태극학보』 제3호; 金鎮初, 1906, 「造林上立地의關係」, 『태극학보』 제5호; 金鎮初, 1907, 「養豚說」, 『태극학보』 제7호; 金鎮初, 1907, 「農園養豚說」, 『태극학보』 제9호; 金鎮初, 1907, 「養豚說 九號續」, 『태극학보』 제10호; 金鎮初, 1907, 「我農界의前途」, 『태극학보』 제11호; 金鎮初, 1907, 「養鷄說」, 『태극학보』 제12호; 金鎮初, 1907, 「養鷄說」, 『태극학보』 제13호; 金鎮初, 1907, 「養鷄說(前號續)」, 『태극학보』 제14호.

40) 耕世生, 1908, 「農業의 改良」, 『서북학회월보』 제4호; 耕世生, 1908, 「民業振興論의 私見」, 『서북학회월보』 제5호; 耕世生, 1909, 「森林의 效用論」, 『서북학회월보』 제14호; 畿世生, 1907, 「農業振興策」, 『태극학보』 제16호; 耕世生, 1908, 「農業의 保護와 改良에 關한 國家의 施設」, 『태극학보』 제17호.

41) 耳長子, 1909, 「甲乙問答」, 『서북학회월보』 제16호.

가로 인한 정실부인의 죽음에 대한 항간의 소문<sup>42)</sup>이나 신식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사치와 방탕함<sup>43)</sup>을 지적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태극학보』에 실린 ‘항설’란에서는 일본인인 모(某) 태랑과 모 차랑이 등장하여 중국의 정치 분열 상황과 한국의 사회운동 및 학교 설립운동에 관한 부정적인 평을 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sup>44)</sup>

그 밖에 김병억, 서병현, 두산일민 등은 교육과 수신, 윤리, 실업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다.<sup>45)</sup>

이 유학생 출신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교육·실업·수양과 관련한 글들로 『서북학회월보』 논지의 초점이 모아졌고, 1909년 10월 대동교가 창건되면서 관련 인사들이 대동학회(大同學會)를 따로 창설하면서 유교 개혁과 관련된 글들이 『서북학회월보』 내에서 줄어든 것 역시 『서북학회월보』의 논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극학보』와 『서북학회월보』에 모두 이름을 올린 필진도 글의 경향성에 있어 학보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김원극이 일련의 기행문을 『태극학보』에 실어 함경남도 영흥지회의 청년들이 자미와 온포와 가락의 글을 쓰는 것이 시국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였듯이,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글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양태를 재현한 글들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두산일민의 경우도 『태극학보』에는 「신교역 전별 제학생 유감」<sup>46)</sup> 등의 시조를 실었으나, 『서북학회월보』에는 여러 편의 교육과 관련된 글들만 싣고 있다. 유학생 공공 영역과 서북학회의 공공 영역뿐 아니라 『태극학보』를 국내에서 읽는 국내 독자의 공공 영역 등이 서로 재현

42) 耳長子, 1909, 「街談」, 『서북학회월보』 제17호.

43) 耳長子, 1910, 「街談」, 『서북학회월보』 제19호.

44) 耳長子, 1908, 「巷說」, 『태극학보』 제23호.

45) 頭山逸民, 1908, 「實業發展의 方針」, 『태극학보』 제24호; 頭山逸民, 1909, 「西洋教育史」, 『서북학회월보』 제17호; 徐炳弦, 1909, 「修身倫理 模範履行 八字를 進呈于被教育者諸君」,

『서북학회월보』 제8호; 徐炳弦, 1908, 「研究는 進化의 本이라」, 『태극학보』 제24호.

46) 頭山逸民, 1908, 「七月二十二日 新橋驛 餉別諸學生 有感」, 『태극학보』 제23호.

의 한계가 달랐으며, 양쪽 모두에 글을 실었던 필진들도 비판의 투서와 학회의 분위기를 느끼며 재현의 임계점들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필진의 중복이 1908년 7~8월 이후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1908년 이후의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기사에서 그 이전에 발간된 『태극학보』의 기사와 유사성이 높은 기사들<sup>47)</sup>이 발견된다. 뒤 <표 5>는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기사 코사인 유사도<sup>48)</sup>가 70퍼센트 이상인 기사 목록이다. 3번의 구급법과 관련된 기사 두 개는 구급법 중 특히 인공호흡법을 공통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박제봉(朴濟鳳)이 간재생(簡齋生)과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서북학회월보』의 회원 명부와 다른 여타의 기사들에서 박제봉이라는 이름은 확인할 수 없고 간재생으로만 여러 편의 기사가 확인되는데, 『서북학회월보』에서 필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닌가 한다. 6번 기사의 필자 박상락(朴相洛) 역시 『태극학보』에 실린 접목법과 관련한 기사를 그가 주도적으로 맡아 썼음을 볼 때, 접목법과 관련한 『서북학회월보』의 기사를 쓴 필자일 수도 있다. 혹은 『서북학회월보』가 그가 번역한 글을 재가공하여 실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유사 기사 목록을 통해 학회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명의 실명에 접근할 수 있거나 관련된 글들을 쓴 필자군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구급치료법이나 접목법 등 실업과 관련된 기사 외에 영웅론, 노동론, 경찰제도와 관련된 기사 중 두 학회지의 유사성이 높은 기사들이 발견된다.

47)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유사도가 다른 잡지들과의 유사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해당 기사들이 다른 잡지보다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개된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기사 사례들은 두 잡지의 유사도를 높여 준 주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48) 앞에서 방법론 설명에서 언급한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해 두 기사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두 문서가 특정 단어군에 대하여 유사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서의 유사도는 100퍼센트(1)에 점점 가까워지며, 반대로 단어의 구성이나 구성 비중이 다를수록 문서 간 유사도는 0퍼센트(0)에 근접한다. 이 연구에서는 잡지 간 유사도를 측정하거나 단어 네트워크를 추출할 때 모두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였다.

〈표 5〉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기사 코사인 유사도 70퍼센트 이상의 기사 목록

	집지명	호수	발행일	기사명	필자명	공통 언어	코사인 유사도
1	서북학회월보	제2호	1908년 7월 1일	普成學校의 林業科	山雲散○	'他國', '光線', '利益', '功用', '土地', '山野', '必要', '教授', '枝葉', '森林', '氣候', '流出', '清潔', '生活', '空氣', '繁殖', '調和', '農業', '酸素'	81.99%
	태극학보	제14호	1907년 10월 24일	理科講談(二)(小學教員 參考)	浩然子 譯		
2	서북학회월보	제2호	1908년 7월 1일	時世가 造英雄	本校學生 朴漢榮(一時間의 作) 課程	'英雄', '華盛頓'	75.87%
	태극학보	제18호	1908년 2월 24일	無名의 英雄	農窩生 鄭濟原		
3	서북학회월보	제4호	1908년 9월 1일	失氣 及 假死의 救急法(前號續)	簡齋生	'呼吸', '壓迫', '患者', '皮膚', '空氣', '衣服', '頭部'	78.59%
	태극학보	제2호	1906년 9월 24일	救急治療法	會員 朴濟楓		
4	서북학회월보	제11호	1909년 4월 1일	勞働의 意義		'人格', '傾向', '勞働', '同時', '存在', '希望', '意義', '活動', '社會的', '神聖', '組織', '自己', '自然', '觀念'	82.16%
	태극학보	제14호	1907년 10월 24일	勞働과 人生	綱島 梁川/白岳春史 譯		
5	서북학회월보	제11호	1909년 4월 1일	勞働의 意義		'人類', '他人', '勞働', '必要', '明確', '生活', '結果', '自己', '自然', '觀察', '關係'	73.08%
	태극학보	제9호	1907년 4월 24일	自我의 自活義務	吳錫裕		
6	서북학회월보	제12호	1909년 5월 1일	接木法		'勢力', '必要', '接木', '方法', '目的', '砧木', '移植', '結果', '肥料'	80.86%
	태극학보	제16호	1907년 12월 24일	接木法(續)	朴相洛(譯)		
7	서북학회월보	제3호	1908년 8월 1일	警察問答	會員 張啓澤	'一定', '保持', '公共', '制限', '命令', '善良', '國家', '執行', '安寧', '強制', '必要', '手段', '政治上', '活動', '目的', '社會', '秩序', '維持', '自由', '行使', '行政', '說明', '警察'	75.03%
	태극학보	제24호	1908년 9월 24일	警察의 定義	李大衡		

영웅론과 관련하여 박한영의 「시세가 조영웅」이라는 글에서는 영웅과 때(時) 즉 시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영웅의 방법론에 있어서 개방과 교통이 필수임을 주장한다.<sup>49)</sup> 이와 비교할인 정제원의 「무명의 영웅」에서는 “워싱턴은 무수한 무명의 워싱턴이 아니면 능히 삼십 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세계에서는 농부, 직공, 상가, 역인, 병졸, 소학교 교사, 노옹과 빈부와 고아 등 무수한 무명씨들이 영웅인 세상이라고 주장한다.<sup>50)</sup> 지금의 영웅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 실업 등의 방면으로 물심양면 직분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이 두 기사의 유사도가 높게 나온 이유이다.

노동론에 있어서는 노동의 사회적 의미에 주목한 글들이 유사도가 높게 나왔다.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노동의 의의」에서는 인류가 하등동물이 아닌 깨닭으로 노동을 한다는 특징을 들며,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동기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과 협동성·조직성·이상성(理想性) 등을 갖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sup>51)</sup> 『태극학보』에 실린 「노동과 인생」이라는 글은 『주오코론(中央公論)』에 실린 쓰나시마 료센(綱島梁川, 1873~1907)의 글을 백악춘사(白岳春史)가 번역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신성관(勞動神聖觀)”을 제시하며 번민하는 청년들을 ‘물질적 사공주의(事功主義)에만 몰두하는 유형’, ‘공상에 빠져 감정을 놓(弄)하는 경박한 여성적 감정적 주의(sentimentalism)의 유형’, ‘회의관·운명론 등에 빠진 유형’ 등으로 나누면서 이 “환몽관(幻夢觀)”에 빠진 청년들을 구제할 방법이 ‘노동’이라는 주장하고 있다.<sup>52)</sup> 노동이라는 개념이 근대적 인간의 개조와 인격 형성에 있어 핵심 요소임을 두 기사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서북학회월보』의 「노동의 의의」는 『태극학보』의 또 다른 글 오석유(吳

49) 朴漢榮, 1908, 「時世가 造英雄」, 『서북학회월보』 제2호.

50) 鄭濟原, 1908, 「無名의 英雄」, 『태극학보』 제18호.

51) 「勞動의 意義」, 『서북학회월보』 제11호(1909).

52) 「勞動과 人生」, 『태극학보』 제14호(1907).

錫裕)의 「자아의 자활 의무」<sup>53)</sup>와도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의 자활 의무」는 자활을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정의하며 노동이 자아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됨을 주장한다. 「노동의 의의」에서도 노동의 목적을 “외부적으로는 재산”, “내부적으로는 인격의 출현”에 두었듯이 이 두 글은 노동이 개인의 경제적·인격적 독립에 있어 기본 요소임을 보여 준다.

경찰제도론과 관련된 7번의 두 글은 경찰제도를 치안의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장계택의 「경찰문답」과 이 대형(李大衡)의 「경찰의 정의」에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찰제도를 소개하며 그것의 목적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함”,<sup>54)</sup> “공공의 행복·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sup>55)</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글은, 앞선 유사 기사들의 관계가 『태극학보』에 실린 기사가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기사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는 것에 반해,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장계택의 글이 『태극학보』에 실린 이대형의 글보다 먼저 발표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북학회월보』의 기사가 『태극학보』 기사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기사들의 관계가 이 기사에서는 전도되고 있다.

공통된 필진 분석과 기사 유사도 분석을 통해 실제로 주필이 바뀐 시기보다 1년 정도 앞선 시점인 1908년 7~8월부터 『서북학회월보』가 태극학회 회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기사 유사도 분석은 근대계몽기 실명과 필명이 혼잡하게 섞이면서 통용되는 지식장, 문학장의 상황에서 실명과 필명의 매칭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혹은 장계택과 이대형, 오석유와 백악춘사의 경찰제도론이나 노동론과 같이 유사한 주제와 담론을 공유한 지식장을 다각화·구체화하여 살펴보는 데에

53) 吳錫裕, 1907, 「自我의 自活義務」, 『태극학보』 제9호.

54) 李大衡, 1908, 「警察의 定義」, 『태극학보』 제24호.

55) 張啓澤, 1908, 「警察問答」, 『서북학회월보』 제3호.

도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된다.

#### 4.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주도 개념어: 근대계몽기 학술장의 주도 개념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주도 개념어를 근대계몽기 학술장 전체의 보편 개념들과 비교하면서 그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학회지의 주도 개념어는 두 학회지 간의 공통된 개념어도 있겠으나, 특정 학회지의 특성을 보여 주는 중복되지 않은 개념어도 포함한다. 근대계몽기 학술장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각 학회에 기반한 학술장 자체의 성격도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개념어의 의미와 맥락,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드러날 수 있고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개념사 연구는 주된 연구 대상을 근대계몽기(1905~1910)를 전후한 시기 생산된 신문과 잡지로 삼아 왔다. 대표적으로 개념사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개념과 소통』(2008~2019)과 동 학원의 <한국개념사총서>(1~12권, 2008~201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일련의 개념사 연구 성과인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1895~1910)』(소명출판, 2004),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1895~1910)』(소명출판, 2006),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1895~1910)』(소명출판, 2007)에 근대계몽기와 관련하여 선택된 개념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념과 소통』<sup>56)</sup>

국가 및 정체 구상과 관련된 개념어: 민족, 개화, 동양, 국어, 유교구신(儒

---

56)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창간호부터 제22호(2018. 12)까지 실린 논문 중 근대계몽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목한 개념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教求新), 유신(維新), 애국, 국가

학문 및 지식체계 변동과 관련된 개념어: 철학, 도학(道學), 천(天), 격치,  
과학, 아(我), 실학

사회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개념어: 노동, 사회, 복종, 주부

<한국개념사총서><sup>57)</sup>

국제관계 및 국가와 관련된 개념어: 만국공법, 국가, 주권 헌법, 문명, 제국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과 관련된 개념어: 국민, 인민, 신민, 민족, 민족주  
의, 역사

학문과 관련된 개념어: 문학, 경제, 경제학

사회와 관련된 개념어: 노동, 보수

이화여대 한국문화원의 근대계몽기 지식 관련 저서들<sup>58)</sup>

국가 및 국권과 관련된 개념어: 문명, 야만, 국민, 조선, 조선인, 영토, 강  
토, 산천, 강산, 조국, 국가, 식민, 망국, 자강, 민권, 독립, 애국  
구성원이 국가 및 사회와 갖는 관계와 관련된 개념어: 민족, 국민, 개인,  
신민(臣民), 동포, 사회

기타: 위생, 시간

위의 개념어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개념어의 용례들뿐 아니라 어떤 개념  
으로 이 시기를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근대계몽기 잡지 10여 종을 대상으로 TF-IDF 가중치<sup>59)</sup>를 이용하여 실제

57)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기획, 2008 ~ 2016, 『한국개념사총서 1 ~ 12』, 도서출판 소화.

5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1895 ~ 1910)』,  
소명출판;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전과 사유지평의 확대  
(1895 ~ 1910)』, 소명출판;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  
실적 심화(1895 ~ 1910)』, 소명출판.

59) 단어 빈도수인 TF(Term-Frequency)와 역문서 빈도인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로 학회보 안에서 사용된 단어 중 빈도에 상관없이(단순히 빈도가 높게 나오는 것과 다르게) 학술지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추출해 본 결과 상위 30개 단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근대계몽기 잡지 10여 종의 TF-IDF 상위 단어 30개

순위	단어	빈도수	TF-IDF	순위	단어	빈도수	TF-IDF
1	國家(국가)	2,707	28.16238	16	會長(회장)	802	15.52398
2	時(시)	4,011	24.5354	17	生(생)	1,589	15.42389
3	教育(교육)	1,494	22.54545	18	法律(법률)	948	15.39158
4	日本(일본)	1,796	20.8893	19	諸君(제군)	689	14.87682
5	今日(금일)	2,126	20.34367	20	精神(정신)	976	14.62164
6	我(아)	1,457	19.24043	21	國(국)	1,121	14.57128
7	本會(본회)	1,018	18.92834	22	會員(회원)	742	14.39965
8	國民(국민)	1,340	17.42209	23	余(여)	1,024	14.38068
9	可決(가결)	882	17.29196	24	韓國(한국)	841	14.17625
10	動議(동의)	706	17.2118	25	再請(재청)	451	14.10767
11	人民(인민)	1,182	16.02506	26	學校(학교)	922	14.02604
12	社會(사회)	1,082	15.81664	27	關係(관계)	1,132	13.09366
13	目的(목적)	1,374	15.67018	28	政府(정부)	923	12.93881
14	必要(필요)	1,558	15.64923	29	義務(의무)	854	12.93449
15	孔子(공자)	424	15.55778	30	英國(영국)	771	12.69626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개념화한 ‘국가’라는 개념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념인 ‘한국’이나 ‘국’ 역시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

곱해 나오는 가중치. 상술했듯 단어의 단순 빈도수로는 해당 단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거의 모든 문서에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빈도수는 크지만, 해당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빈도수에 역문서 빈도(해당 단어가 등장한 문서 수의 역수)를 곱해 단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있다. ‘정부’, ‘법률’, ‘인민’, ‘국민’, ‘의무’ 등 국가 구성의 기관과 체재(體裁) 그리고 구성원과 관련된 개념들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국가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교육’과 ‘학교’와 같은 지식상의 근대화도 중요한 화두였다. 이를 위해 ‘일본’과 ‘영국’과 같은 문명국들이 중요하게 참조되고 있었다.

〈표 7〉 상위 개념어의 유의어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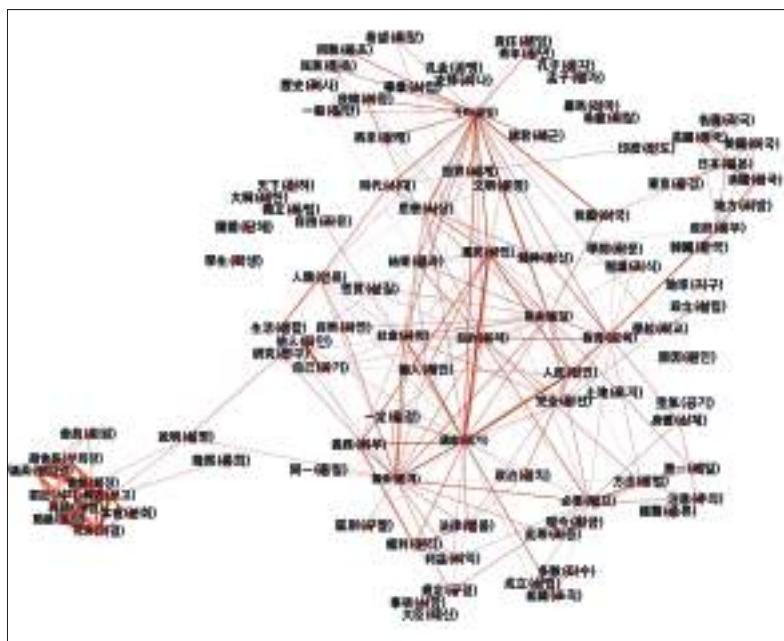
개념어	유의어	개념어	유의어
국가	국가-사회, 일-국가, 국가-간, 대한-국가, 국가-경제, 국가-주의	정부	중앙-정부, 청-정부(淸政府), 정부-당국자, 청국-정부, 양국-정부(兩國政府), 미국-정부
교육	교육-계, 가정-교육, 교육-자, 교육-상(教育上), 교육-가(教育家), 교육-부장, 의무-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영국	영국-인, 영국-이언(英國哩諺), 영국-해협, 영국-황제, 영국-파(英國派), 영국-정부, 영국-민
일본	일본-인 일본-국, 일본-해(日本海), 일본-대학, 일본-정부, 일본-어, 일본-이언(日本哩諺)	동포	아-동포, 일반-동포, 이천만-동포, 전국-동포, 유지-동포(有志同胞), 동포-형제
국민	국민-적(國民的), 아-국민(我國民), 일반-국민, 국민-전체, 국민-회(國民會), 국민-의무, 소년-국민, 이한-국민(我韓國民), 타-국민(他國民)	문명	문명-국, 문명-정도, 세계-문명, 문명-제국
인민	일반-인민, 전국-인민, 지방-인민, 아국-인민(我國人民), 인민-간(人民間), 토지-인민, 인민-생활, 인민-사회	독립	독립-국, 독립-심, 독립-자유, 독립-정신, 독립-자존, 독립-권, 자주-독립
사회	사회-상(社會上), 사회-적(社會的), 사회-교육, 인류-사회, 국가-사회, 제-사회(諸社會), 일반-사회, 교육-사회, 하등-사회	주권	주권-자, 주권-국, 국가-주권, 대외-주권, 자주-권, 종주-권, 주권-행사
법률	법률-상(法律上), 법률-적(法律的), 법률-학, 법률-과, 정치-법률, 법률-명령, 법률-가(法律家)	애국심	我大韓人之無-愛國心也, 滋養其-愛國心, 愛國心-興參政權, 愛國心-之發源也

국(國)	한-국, 아-국, 청-국, 영-국, 미-국, 각-국, 덕-국, 범-국	애국	애국-성(愛國性), 애국-사상, 충군-애국, 애국-설(愛國說), 애국-자, 애국-가, 진-애국자(眞愛國者)
한국	한국-인, 한국-은행, 아-한국-민(아한-국민), 한국-민, 한국-정부	야만	야만-인, 야만-국, 야만-시대, 야만-민족, 야만-부락

<표 7>에서는 <표 6>의 상위 단어군들의 유의어 중 TF 가중치가 높은 것 순서로 추출해 보았다. ‘국가주권’이나 ‘사회교육’과 같이 가중치가 높은 개념어끼리 결합한 상호인접어의 관계도 있고, ‘인민 간’, ‘국민적’과 같이 파생 관계로 생산된 인접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접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천만 동포’, ‘동포형제’, ‘문명 정도’ 등 복합관계로 생산된 인접어이다. 애국심의 경우 인접어가 구절 단위로 나타난다. 이는 한문 구절의 비중이 높은 근대계몽기 잡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이를 대한인-애국심, 키우다-애국심, 애국심-참정권, 애국심-발원 등으로 쪼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뒤의 [그림 7]은 TF-IDF 가중치 분석으로 근대계몽기 학회지 11종에 대한 상위 언어를 추출하고 그중 100개의 상위 언어 간의 네트워크를 그린 그림이다. 이를 확인하면 ‘국가’·‘금일’·‘목적’ 등의 단어가 높은 중요도를 갖고 가운데 위치하며, ‘독립’·‘자유’·‘학생’·‘교육’과 관련된 개념어들이 주변에 포진한다. 한편으로 좌상단에는 ‘공맹’·‘공자’·‘맹자’와 같은 유학과 관련된 개념어들도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하단에 ‘회원’·‘부회장’·‘가결’ 등의 단어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우상단에는 ‘미국’·‘일본’·‘청국’·‘인도’ 등 외국과 ‘한국’·‘각국’이라는 국가 개념어가 군집을 이루어 몰려 있다.

‘각국’이나 ‘세계’라는 세계체제(world system)를 지향하는 개념어와, ‘미국’·‘영국’·‘일본’ 그리고 일본의 ‘동경’과 같이 ‘문명’화된 ‘국가’와, ‘지나’와 ‘인도’와 같이 문명국에 대한 패전의 경험에 있거나 식민지가 되어 버린 나라들을 조망하며 ‘한국’·‘아국’·‘정부’의 ‘독립’과 독립을 위한 ‘교육’·‘정치’·‘정



[그림 7] 근대계몽기 10여 종 잡지의 TF-IDF 상위 100개 단어 네트워크 시각화

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10여 종의 학회지 전반의 특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학회지별로, 학회지 간 관계성과 차이성을 살펴보려면, 특정 학회지의 주도적인 개념어를 따로 분석하여 전체 학회지의 학술장의 주도 개념어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전체 학술장의 주도 개념어가 특정 학회지 안에서 의미화·맥락화되는 방식은 주도 개념어가 다의성을 획득하며 특정 주체와 지역에서 의미가 수용되는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다. 본고는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에 목적으로 두었으므로 뒤에서는 두 학회지의 TF-IDF 가중치가 높은 상위 단어 각각 50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겠다.

〈표 8〉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TF-IDF 가중치가 높은 50개 단어의 순위  
(왼쪽→오른쪽)

순위	서북	태극	순위	서북	태극
1	公佈	國家	26	國民	發達
2	國家	會員	27	余	本會員
3	可決	教育	28	發達	人類
4	時	今日	29	自己	社會
5	我	時	30	今	身體
6	社會	精神	31	會員	生活
7	動議	同胞	32	生	學問
8	教育	本會	33	生活	空氣
9	今日	自由	34	境遇	義務
10	學校	東京	35	自由	關係
11	再請	自己	36	國	他人
12	諸君	國民	37	人民	不能
13	本會	我	38	完全	金洛泳
14	目的	生	39	先生	學校
15	西北	日本	40	關係	研究
16	支校	我國	41	思想	能
17	同胞	諸君	42	會長	地球
18	成	人民	43	李達元	韓國
19	義務	國	44	韓國	支那
20	我國	人生	45	學生	時代
21	依	目的	46	植物	思想
22	日本	余	47	崔在學	見
23	必要	必要	48	難	土地
24	孔子	入學	49	用	彼
25	韓	青年	50	精神	世界

\* ‘서북’은 『서북학회월보』, ‘태극’은 『태극학보』이다.

앞의 <표 8>은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서 TF-IDF 가중치가 높은 단어 50개를 각각 제시한 표이다.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서 ‘국가’는 두 잡지에서 비중이 높은 단어로 등장하였으나, 『태극학보』에서 ‘국가’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단어인 반면 『서북학회월보』에서는 ‘공포(公布)’ 다음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또한 ‘시(時)’나 ‘금(今)’, ‘금일(今日)’, ‘아(我)’, ‘여(余)’, ‘자기(自己)’와 같은 시간성과 주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서 공통적으로 비중 있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순환론적 시간관과 다르게, ‘지금’이라는 현재적 시간이 이전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사이에 긴장적 관계로 개입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와 미래를 조직하는 책무가 중요해지는 만큼 현재는 미래와 강하게 연결되어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적 책무 즉 과거와 미래를 조직하는 그 책무의 주체성이 ‘아’, ‘여’, ‘자기’ 등에 부여된다. ‘아’나 ‘여’라는 주체성은 단수와 복수(집단)를 모두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자기’라는 명칭은 ‘아’나 ‘여’보다는 단독성이 강한 개념이다. 그러나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서 ‘자기’는 ‘若知自己而能察他人’,<sup>60)</sup> ‘各自의 身體를 健強히 흠은 自己一身의 幸만 아니라 社會公衆에 對호 義務를 盡함이니’<sup>61)</sup>와 같은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인’이나 ‘사회’로 나아가는 기초적 개인의 확립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태극학회』에서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개인과 사회의 주체성을 떠는 개념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앞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극학보』와 『서북학회월보』는 공히 ‘교육’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청년’은 피교육자이면서 또 훗날 사회의 수많은 지식과 인격을 갖춘 인민을 형성할 교육자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태극학회』의 논설에서는 “국민의 진부(陳腐)한 사상을 일신고상케 하고 부의 원천을 개발하며 기계를

60) 韓文彥, 1908, 「我韓의 最急이 法律에 在홈」, 『서북학회월보』 제1호.

61) 柳隱生 康秉鉉, 1906, 「衛生」, 『태극학보』 제1호.

발달하여 이용후생의 도를 개진한 연후에 개명에 도달할지니 큰 책임 큰 의무를 부담한 자가 학생청년이 아니고 누구리오”<sup>62)</sup>와 같이 ‘청년’이라는 개념에 새로움과 새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며 과거와 단절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태극학보』 제24호 김원극의 최시건(崔時健)에 대한 조문(弔文)에서는 동명학교의 창립자이자 고아원 설시에 앞장서 교육운동을 활발히 벌이다 요절한 최시건을 애도하면서 최시건의 열심을 전국 일반 동포가 배워야 하며 지금의 참혹한 국가 정세 속에서 수억의 인민 중 바로 제국청년이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뉘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3)</sup>

『태극학보』 내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어의 유의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청년(我青年), 대한청년, 오배청년(吾輩青年), 청년시대, 대한기독청년회, 유지청년(有志青年), 청년학원, 청년사회’ 등이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근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사명을 띤 새로운 세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만큼, 여기에는 과거 세대에 대한 비판과 과거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반정립의 의미가 담겨 있다.<sup>64)</sup> 『태극학보』의 여러 논자는 지금을 “청년시대”로 종종 규정하고 있다.<sup>65)</sup> 곽한칠(郭漢七)의 「인격수양과 의지공고」에서는 “금일의 우리 청년은 국가의 후속자도 다른 날(他日)의 선도자라”며 “청년시대에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의무는 인격의 수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66)</sup> ‘청년’이라 함은 “학자신사(學者紳士)의 천직(天職)”으로서 문화교육·학교교육을 받은 자를 기본적으로 일컫지만,<sup>67)</sup>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묘(靈妙)한 세계”와 “가정의 부모”와 거리를 두고 “독립의 사회적 생활을 경영코자 하는

62) 會員 表振摸, 1906, 「奮起여다 우리 同胞青年」, 『태극학보』 제1호.

63) 金源極, 1908, 「吊崔時健文」, 『태극학보』 제24호.

64) 최성민 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집.

65) 郭漢七, 1907, 「人格修養과 意志鞏固」, 『태극학보』 제9호; 全永爵, 1907, 「人生各自에 關한 天職」, 『태극학보』 제6호; 浩然子, 1908, 「青年의 處世」, 『태극학보』 제18호.

66) 郭漢七, 1907, 「人格修養과 意志鞏固」, 『태극학보』 제9호.

67) 全永爵, 1907, 「人生各自에 關한 天職」, 『태극학보』 제6호.

자”, “진취적, 적극적이요 결코 보수적, 소극적이 아니니” 이를 위해서는 인격이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sup>68)</sup> ‘청년’은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사상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형성되어 나가야 하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서북학회월보』에서도 ‘청년’은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교육’의 문제에 있어 비교적 더 고려되던 문제는 교육의 ‘확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북학회월보』 내에서 ‘교육’과 관련한 유의어를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교육계, 교육사업, 교육기관, 교육가, 교육 발달, 대교육가, 학교교육’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태극학보』에서 교육의 유의어들을 살펴보면 ‘가정교육, 사회교육, 교육계, 정신교육, 보통교육, 학교교육, 신체교육, 국민교육’ 등을 들 수 있다. 『태극학보』는 가정·사회·학교에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즉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서북학회월보』는 교육계와 교육사업·교육기관 등 교육의 장(場)의 형성과 그 자체의 발달 문제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 <표 8>에서 제시한 단어 중 『서북학회월보』에서 가중치가 높은 단어 들에는 ‘학교’·‘지교(支敎)’ 등 학교의 확장성에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서북학회 자체의 확장 문제와 관련된 가결(可決)·재청(再請), 회장(會長)·회원(會員)의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북학회에서 회(會)의 확장은 지교의 확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유영렬의 연구에 따르면 관서(關西) 지방에 지회를 설립한 학회로는 서북학회, 대한협회, 태극학회가 있었다. 서북학회는 평안남도에 개천(介川), 숙천(肅川)·은산(殷山)·평양(平壤), 평안북도에 가산(嘉山)·구성(龜城)·박천(博川)·영변(寧邊)·운산(雲山)·의주(義州)·정주(定州)·철산(鐵山)·태천(泰川) 등 관서지역에 13개 지회를 설립하였다. 대한협회도 평안남도에 평양·영유(永柔)·삼화(三和) 등 3개 지회를, 평안북도에는 정주·운산·철산·창성(昌城)·선천(宣川)·의주(義州)·선천남도(宣川南島)·구성(龜城)·용

68) 浩然子, 1908, 「青年의 處世」, 『태극학보』 제18호.

천(龍川)·태천 등 13개 지회를 설립하였다. 태극학회는 평안남도에 영유(永柔), 성천(成川) 지회와 평안북도에 용천 지회 등 모두 3개의 지회를 설립하였다.<sup>69)</sup>

서우학회가 설립한 서우학교와 한복흥학회가 설립한 한복의숙은 서북학회가 설립되면서 서북협성학교라는 명칭 아래 통합되었다. 서북학회는 지회가 설시된 곳에 지교를 설치하는 경향이 강했다. 관서지방에 한하여 지회가 설시된 평안남도 개천에는 삼수학교(三秀學校)를, 은산에는 문창학교(文昌學校)를, 평양에는 대성학교(大成學校) 등을 세운다. 평안북도에서는 가산에 원명학교(元明學校)·동창학교(東昌學校)·의명학교(義明學校)·학산학교(鶴山學校) 네 곳을, 구성에는 신명학교(信明學校)·대동학교(大同學校) 두 곳을, 박천에도 박명학교(博明學校)·진명학교(振明學校) 두 곳을, 용천에는 창명학교(昌明學校)를, 태천에는 견심학교(見心學校)·한흥학교(韓興學校)를 설립한다.<sup>70)</sup>

『서북학회월보』 제13호에 실린 정주군(定州郡) 회원 임태익(林泰翼)이라는 자가 보낸 편지에서는 “서북학회의 시무는 교육을 확장하는 것”, “흔미함을 깨우쳐 위태로움을 훌륭함으로 일시에 바꾸고자 한다면 학교를 세우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sup>71)</sup> 또한 흠유아(欽惟我)라는 필명을 가진 자가 쓴 「금천군 금흥학교 취지서」에서는 금흥학교의 설립을 “우국지사가 마침내 교육의 급무를 깨달아 국내 학교의 설립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sup>72)</sup> 이렇듯 서북학회는 교육기관의 확장, 교육 시설의 설비 문제 그 기반이 되는 지회의 확장을 계몽의 우선 과제로 간주하였다. 또한 지

69) 유영렬, 1996, 「대한협회 지회 연구」, 『국사관논총』 제67집, 63쪽; 조현욱, 2000, 앞의 논문, 131쪽. 관서 지방만 비교하더라도 서북학회는 대한협회와 경쟁적으로 지회 확장을 위해 힘을 쏟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북학회와 대한협회의 지회가 위치한 지역이 겹치는 곳이 상당수(구성·평양·영유·운산·태천 등)이며, 선천 지역은 남도와 북도를 나누어 대한협회와 서북학회가 지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교하여 태극학회의 지회 확장은 널 활발하였다.

70) 조현욱, 2000, 앞의 논문, 136쪽.

71) 「定州郡會員 林泰翼氏가 義捐全文이 如左호니」, 『서북학회월보』 제13호(1909).

72) 欽惟我, 1909, 「金川郡金興學校趣旨書」, 『서북학회월보』 제18호.

회 확장과 지교 설립운동에 태극학회에서 활약한 회원들 장응진, 문일평, 김현식, 김진초 등이 교사로서 혹은 학교 운영자로서 적극 합류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 교육자를 교육의 주체로 적극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대 학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표 8>에서 『서북학회월보』에서 ‘공자(孔子)’가 높은 비중으로 출현하였듯이, 『서북학회월보』는 ‘공자’로 대표되는 유학 즉 도학(道學)이 부재하면 ‘공리를 축출하고 인도를 벼려 일가 내의 부자·형제 간에도 서로를 적대시할 것’으로 보며<sup>73)</sup> 근대학문과 개신유학의 도덕과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이 지점에서 『태극학보』의 청년 담론이 단순히 근대교육의 세례뿐 아니라 인격 수양을 강조한 지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중치가 높은 인명으로는 『서북학회월보』에서는 이달원(李達元)과 최재학(崔在學), 『태극학보』에서는 김낙영(金洛泳)이 제시되었다. 이달원은 대한협회의 대구지회 회원으로, 서우학회의 회원이자 학회의 월보인 『서우』의 협찬원(協撰員)으로도 활동하였다. 이달원은 『서북학회월보』에 위생과 관련된 기사를 주로 연재하였으나, 이 『서북학회월보』 안에서 가중치가 높게 나온 것은 기사의 비중보다는 회원으로서의 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북학회월보』의 「회사요록(會社要錄)」이나 「회사기요(會事記要)」, 「회보(會報)」와 같이 회원 소식이나 회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록들에서 이달원은 안건을 가결시키는 주요 재청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재학은 대한자강회의 간사원, 대한협회의 총대(總代), 서우학회의 사찰원, 서북학회의 실업부 연구위원으로서 학회 및 협회 활동을 활발히 한 인물이다. 이 역시 이달원과 유사하게 『대한협회회보』나 『서우』, 『서북학회월보』에 최재학의 이름으로 실린 기사는 없고 대부분 「회원명부」나 「회록(會錄)」 등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회의 유지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극학보』의 김낙영은 「여자 교육」, 「아이 기르는 방법」, 「세계문명사」

73) 謙谷 朴殷植, 1909, 「東洋의 道學原流」, 『서북학회월보』 제16호.

등 『태극학보』에 25개의 기사를 실었다. 『태극학보』에 실린 기사 목록은 총 505개인데, 매호 26개 정도의 기사가 실리고 제26호까지 발간되었다고 할 때 김낙영의 기사 수는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근대계몽기 학회지에서 가중치가 높은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주도 개념들을 드러내 보았다. ‘국가’·‘국민’·‘문명’·‘독립’ 등의 학술장 전체의 보편 개념어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가운데,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는 특히 ‘교육’과 관련된 개념들의 가중치가 높았다. 다만 『서북학회월보』는 교육과 회 자체의 유지와 확장을 밀접히 관련짓고자 하는 경향이 ‘가결’·‘동의’·‘지교’ 등의 단어로 확인되었고, 『태극학보』는 교육의 주체로서 또는 미래와 결속되어 있는 현재의 과업을 이끌어 갈 사명을 띤 주체로서 ‘청년’을 강조하였다. 세대적·의식적으로 이전과 구분되는 ‘청년’이라는 주체는 인격적 측면에서도 완성된 상태에 이르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사회적·국가적 책무를 담지할 주체 양성에 있어 태극학회와 서북학회의 활발한 인적 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극학회는 서북학회의 근대교육과 전통적 도덕이 결합된 주제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본고는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전자화된 근대 계몽기 1905 ~ 1910년 사이 발간된 학회보 및 협회보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재일본 유학생 잡지 사이의 상관성을 제외하고 국내와 유학생 잡지 중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북학회월보』 내에서의 기사 유사도 히트맵을 통해 1909년 8월 19일 김원극이 박은식의 뒤를 이어 『서북학회월보』의 주필이 되는 시점부터 『서북학회월보』의 논조 변화가 보이고 히트맵 색의 변폭이 좁은 것으로 보아 논지가 초점화되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이 시점부터 1년 정도 앞선 시점 즉 1908년 7~8월 일본 유학생들이 조선으로 귀국하며 태극학회 회원을 서북학회가 흡수하면서 기반이 닦였다고 볼 수 있다.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 모두에 글을 실은 중복 필진이 나타나는 시점과 기사 유사도 검색에서 『태극학보』에 실린 글이 『서북학회월보』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1908년 7월 이후 높아진 점 등이 이를 보여 준다.

둘째,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 모두에 글을 쓴 필진은 10명 정도이지만 기사 유사도 검색을 통해 필명 정리가 될 경우 중복 필진을 더 드러낼 수 있으리라 보며,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서 서로 관련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던 필진군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필진의 실명과 필명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학회지 안에서도 기사 유사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진초는 『태극학회』에는 실명으로 기사를 쓰고 『서북학회월보』에는 경세생이란 필명으로 농업론을 연재하였는데, 두 잡지 간 상호 분석과 한 학회지 간 상호 분석을 통해 필명이 확정되는 단계를 거치면 근대계몽기 학회지 필진의 기사량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박재봉과 간재생이라는 실명과 필명의 상관관계도 기사 유사도 분석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장계택이나 이대형 같은 이들은 1910년 이후 지방법원 서기나 경찰로서 이력을 공유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또는 두 학회지에서 농업, 위생 등 각각의 주제로 글을 게재한 필진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를 향후 더 그려 볼 수 있다.

셋째, 본고는 근대계몽기 학회지 10여 종의 TF-IDF 상위 100개 단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회』의 주요 개념어를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그동안 근대계몽기 잡지나 신문을 대상으로 한 개념사 연구들에서 주요 개념어로 여겨진 ‘국가’, ‘교육’, ‘독립’, ‘자유’ 등의 가중치

가 실제로도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근대 개념어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의 개념사 연구가 축적해 온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학회지마다 중심에 두었던 주요 개념들의 비중은 서로 다를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도출된 개념어들이 지금까지 주요 개념어로 여겨진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 두 잡지를 대상으로 따로 TF-IDF 가중치가 높은 50개 단어를 추려 보았다.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에서는 공히 ‘교육’이라는 개념어의 비중이 높았다. 그중 『태극학보』는 ‘청년’이라는 새 시대에 새로운 정신을 담지한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교육’이라는 개념어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놓고 있었다. ‘연구’, ‘교육’, ‘유학(留學)’ 등의 단어들이 가중치가 높게 나온 것 역시 “청년시대” 교육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서북학회월보』에서는 학회 자체의 확장과 교육기관의 확장이 밀접하게 연관된 사정이 있어 ‘교육’이라는 개념이 ‘교육-계, 교육-사업, 교육-기관’이라는 유의어를 가지는 만큼 교육의 장(場)과 시설 확대에 집중하였다. 『서북학회월보』에서 ‘가결’, ‘재정’, ‘회장’, ‘회원’ 등 회의 운영과 원칙에 관련된 용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지교’ 등 단체의 범위 확장과 관련된 용어들이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를 보여 준다. 『태극학보』의 청년 개념이 단순히 근대 지식을 습득한 기술자라기보다 인격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담론 주체라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서북학회월보』가 유학의 개혁운동 등을 통해 신구 절충적인 통합적 주체 형성에 기울인 노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태극학회 회원 상당수가 귀국해 서북학회의 교육과 회의 확장 사업에 참여한 것 역시 새로운 주체 형성 문제에 있어 절충적 시각을 보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계 언어 분석을 통해 전체 근대계몽기 학술장 안의 주요 개념어들을 확인하고, 이 개념들이 개별 학회지에서 구체적으로 맥락화해 가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주도 개념들과 차이가 생기는 개별 학회지만의 언어들을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유사도를 통한 필진의 학회지

간, 하나의 학회지 내에서의 상호 확인, 각 학회보의 주도 언어들과 전체 학회보의 주도 언어 간의 차이와 비교를 통해 보다 확장된 근대계몽기 학회보 및 협회보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접수일(2019. 5. 11), 심사 및 수정일(1차 2019. 6. 4, 2차 2019. 6. 10), 게재확정일(2019. 6. 10)

---

## 참고문헌

---

### 1. 1차 자료

태극학회, 『태극학보』.  
서북학회, 『서북학회월보』.

### 2. 2차 자료

#### 1) 단행본

- 구장률, 2012, 『근대 초기의 잡지의 분과 학문의 형성』, 케이포북스.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현실사.  
유준기, 1999, 『한국근대 유교개혁운동사』, 아세아문화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1895 ~ 1910)』, 소명출판.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1895 ~ 1910)』, 소명출판.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1895 ~ 1910)』, 소명출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기획, 2008 ~ 2016, 『한국개념사총서 1 ~ 12』, 도서출판 소화.  
허수, 2011,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푸른역사.

#### 2) 논문

- 곽형기, 1998, 「한말 태극학회의 활동과 체육사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7권 제4호.  
길진숙, 2006, 「문명의 재구성 그리고 동양 전통 담론의 재해석: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321 ~ 353쪽.  
김명옥, 1995, 「한말 태극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미오, 1981, 「한말의 기호홍학회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영민, 2007, 「근대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32호, 297~338쪽.
- 김일수, 2002, 「대한제국 말기 대구지역 계몽운동과 대한협회 대구지회」, 『민족문화논총』 제25집, 173~207쪽.
- 김항구, 1993, 「대한협회(1907~1910) 연구」,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현주, 2015, 「계몽기 문화 개념의 운동성과 사회이론」, 『개념과 소통』 제15호, 5~45쪽.
- 박민영, 1996, 「1908년 鏡城義兵의 편성과 대한협회 鏡城支會」,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집, 170~200쪽.
- 박주원, 2006, 「1900년대 초반 단행본과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 담론의 특성」,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63~107쪽.
- 안남일, 2019, 「『태극학보』 소재 의료 관련 텍스트 연구」, 『한국학연구』 제68집, 259~279쪽.
- 엄기윤, 2018, 「대동학회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렬, 1996, 「대한협회 지회 연구」, 『국사관논총』 제67집, 387~413쪽.
- 이송희, 1983,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상 하」, 『한국학보』 제31~32호, 82~106쪽.
- 이송희, 1984,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사상」, 『부산여대사학』 제1호, 117~151쪽.
- 이재봉, 2009, 「근대의 지식체계와 문학의 위치」, 『한국문화논총』 제52집, 149~183쪽.
- 이재연, 2014,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 제17호.
- 이재연, 2016a, 「생활'과 '태도': 기계가 읽은『개벽』과『조선문단』의 작품 비평어와 비평가」, 『개념과 소통』 제18호, 277~334쪽.
- 이재연, 2016b, 「키워드와 네트워크: 토퍼 모델링으로 본『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제46집, 5~52쪽.
- 전성규, 2018, 「근대계몽기 정체(政體) 담론과 지식인-문인 공공 영역의 생성: 협회·학회운동과 사대부적 공공 영역의 장기 변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 전은경, 2018, 「근대계몽기 서북지역 잡지의 편집 기획과 유학생 잡지의 상관관계: '문학' 개념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83호, 279~321쪽.
- 전재관, 1997,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승실사학』 제10집, 153

~194쪽.

정태주, 1996, 「대한홍학회의 성립과 활동」,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현욱, 1995,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I」, 『한국학연구』 제5집, 47~97쪽.

조현욱, 2000, 「서북지회의 관서지방 지회와 지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4호, 123~188쪽.

조현욱, 2001, 「안악지방에서의 애국계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8호, 307~333쪽.

조현욱, 2002, 「한북홍학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호, 3~102쪽.

최성민, 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집, 227~248쪽.

홍인숙·정출현, 2012, 「『大韓自強會月報』의 운동성과 지향 연구」, 『동양한문학 연구』 제30집, 353~381쪽.

류칭평, 2009, 「관념사(觀念史)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 『개념과 소통』 제4호, 175~216쪽.

**Abstract**

## Discursive Correlation between *Seobuk Hakhoe Wolbo* (*Seobuk Monthly Magazine*) and *Taeguek Hakbo* (*Taeguek Bulletin*) Using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y

Seongkyu Jeon<sup>\*</sup>, Byungjun Kim<sup>\*\*</sup>

■ **Keywords:** digital humanities, modern Korean academic arena, enlightenment era of modern Korea, *Seobuk Hakhoe Wolbo* (*Seobuk Monthly Magazine*), *Taeguek Hakbo* (*Taeguek Bulletin*), cosine similarity, TF-IDF

The relationship between *Seobuk Monthly Magazine* and *Taeguek Bulletin* was investigated using a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y. In a quantitative analysis of correlations among a wide variety of academic and association publications between 1905 and 1910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hese two showed the greatest degree of similarity, with the sole exception of correlations among Japanese and Korean student magazines.

Similarity heatmaps of articles in *Seobuk Monthly Magazine* and *Taeguek Bulletin* highlight changes in their tone, and the inflection point explains their interrelationship. Based on a cosine similarity between the articles of the two public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Sungkyunkwan University

\*\* Doctoral Graduate Student in the Interaction Science in the Sungkyunkwan University

articles resulted from writers who contributed to both.

In addition,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whole magazines published in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including from *Seobuk Monthly Magazine* and *Taeguek Bulletin*, based on TF-IDF weighting. This allows a comparison of the two magazines with academic publications from modern fields of study, which reveals that concept words which had been considered important in earlier conceptual history research, such as ‘nation,’ ‘people’ and ‘civilization’ were very important in academic publications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Also, for the terms ‘education,’ ‘youth,’ and ‘Confucius,’ there is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 discourse of *Seobuk Monthly Magazine* and *Taeguek Bulletin*.